

심층분석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2026.04.14

심층 분석 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심층분석보고서: 산은캐피탈 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1장. 산업(섹터) 분석: 여신전문금융업의 구조와 역동성

1-1. 여신전문금융업의 정의와 법적 체계

여신전문금융업은 1997년 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특수한 금융업종입니다. 일반 은행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수신(예금) 기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는 예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채(여전채), 기업어음(CP), 은행 차입금,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시장성 자금 조달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 구조적 특성은 여전사의 경영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곧 수익성의 상한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일수록 저리에 자금을 조달하여 더 높은 순이자마진(NIM)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은캐피탈이 AA-(안정적)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재무 지표가 아니라, 사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자산입니다.

여전법상 여전사의 업무 범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시설대여(리스), 둘째 할부금융, 셋째 일반대출(기업·개인), 넷째 신기술사업금융(벤처투자)입니다. 이 중 신기술사업금융은 여전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거나 융자하는 업무로, 캐피탈사가 벤처캐피탈(VC) 역할을 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산은캐피탈이 다른 캐피탈사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이 네 번째 업무 영역에서의 압도적 역량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총 181개 여전사가 영업 중이며, 이 중 리스·할부 겸영사가 50개, 신용카드사가 8개, 순수 신기술금융전문회사가 123개입니다. 산은캐피탈은 리스·할부 겸영사이면서 동시에 신기술금융 역량을 갖춘 회사로, 양쪽 시장에 걸쳐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1-2. 시장 규모와 성장 동향

한국 여신전문금융업의 시장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수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금융지주 내 여전사 총자산은 약 236조원으로, 이는 전체 금융지주 자산의 6.3%에 해당합니다. 비카드 여전사(캐피탈사·리스사·신기술금융사) 183개사의 2025년 상반기 합산 순이익은 1조 7,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업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대형 캐피탈사는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KB캐피탈, 신한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현대커머셜, 산은캐피탈 등 7곳에 불과하며, 이들이 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지배합니다. 반면 중소형 캐피탈사는 자금 조달 스프레드 확대, 부동산PF 부실, 연체율 상승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2025년 캐피탈업 산업전망을 '비우호적(Negative)', 신용도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업계 전반의 건전성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M캐피탈과 한국투자캐피탈 등 특정 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산은캐피탈의 연체율 0.3%, NPL 0.5%라는 건전성 지표는 업권 평균(연체율 2.47%, NPL 약 2.7%)의 1/5~1/9 수준으로, 동사가 업계 내에서 얼마나 예외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3. 캐피탈업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

캐피탈업의 가치사슬은 네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의 경쟁력이 최종 수익성을 결정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첫 번째 단계는 **자금조달**입니다. 여전채, CP, 은행차입금, ABS 발행 등을 통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며, 이 과정에서 회사의 신용등급이 절대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동일한 1,000억원을 조달하더라도 AA-등급 회사와 A등급 회사의 금리 차이는 연 0.5~1.0%포인트에 달할 수 있으며, 이 차이가 곧 수익성 격차로 직결됩니다. 산은캐피탈은 AA-(안정적) 등급으로 캐피탈사 중 최상위급이며, KDB산업은행이라는 국책 모회사의 암묵적 지원(Implicit Support)도 조달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사/언더라이팅**입니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CSS(Credit Scoring System)를 통한 자동화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재무분석, 사업성 평가, 기술성 평가(이공계 인력의 핵심 역할)가 복합적으로 수행됩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심사 모델, 대안 데이터(Alternative Data) 활용 등 기술적 혁신이 심사 영역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이 영역이야말로 이공계 인재가 금융업에서 차별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지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행(영업)**입니다. 리스, 할부, 대출, 투자금융 등 여신 상품을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이자마진(NIM)이 핵심 수익원으로 작용합니다. 산은캐피탈의 경우 단순 여신 실행보다 투자금융(벤처투자, PEF, 메자닌) 실행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투자금융은 이자 수익 외에 자본이득(Capital Gain)이라는 추가 수익원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후관리**입니다. 연체관리, 채권회수, NPL(부실채권) 매각, 그리고 투자금융의 경우 피투자기업 모니터링과 엑시트(Exit) 전략 수립이 포함됩니다. 대손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종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며, 산은캐피탈이 업계 최저 수준의 연체율과 NPL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후관리 역량이 뛰어난을 의미합니다.

1-4. 2023~2026년 산업 핵심 트렌드

첫째, 디지털 전환(DX)과 AI 전환(AX)이 가장 뚜렷한 트렌드입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전사 16개 AX(AI전환) 과제를 추진하며 생성형 AI 플랫폼, AI-OCR(광학문자인식), 365일 디지털 상담 체계를 구축 중이고, 하나캐피탈은 2024년 연봉 대비 1인당 생산성 1위를 탈환하면서 디지털 효율화의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대출심사 등 '고영향 AI'를 별도 분류하여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는 금융 AI 시스템의 설계·검증·감사에 이공계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산은캐피탈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초기 단계에 있어, 신규 입사하는 이공계 인재에게는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는 개척적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둘째,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규제 변화는 레버리지 배율 축소입니다. 기존 10배였던 레버리지 상한이 2025년부터 8배로 단계적 축소되었으며, 향후 위험기반 자본규제(Risk-Based Capital)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배율이 축소되면 동일한 자기자본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산은캐피탈의 현재 레버리지 배율은 6.3배로 규제 상한(8배) 대비 상당한 여유가 있어, 추가 자산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셋째, 금리 환경 변화가 조달 비용과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여전채 발행 금리도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나, 문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스프레드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대형사는 기준금리 인하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형사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AA- 등급의 산은캐피탈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입니다.

넷째,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가 업계의 최대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여전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저는

심층 분석 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약 27.5조원에 달하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론이 34%를 차지합니다. 부실사업장 정리가 가속화되면서 일부 캐피탈사는 대규모 총당금 적립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산은캐피탈은 부동산PF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우량 딜 위주로 선별 취급하는 보수적 전략을 취하고 있어 이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섯째, 전기차 확산과 모빌리티 변화가 자동차금융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열화에 따른 잔존가치 예측이 내연기관차보다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리스·렌탈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환경에서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이해, 잔존가치 예측 모델 개발 등에서 이공계 인력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은캐피탈의 자동차금융 비중은 약 22%로 현대캐피탈(68%+)이나 KB캐피탈(59%)에 비해 낮지만, 오토리스·오토론 영업에서 전기차·수소차 관련 기술 이해가 필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1-5. 주요 플레이어와 경쟁 구도

국내 캐피탈 시장의 경쟁 구도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동차금융 중심의 캡티브(Captive) 캐피탈사로, 현대캐피탈(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커머셜이 대표적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총자산 40조원 이상으로 업계 단독 1위이며, 현대·기아차 판매 연동 자동차 할부·리스가 핵심 사업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은행계(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로, KB캐피탈, 하나캐피탈, 신한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지주의 고객 기반과 채널을 활용한 리테일 금융이 강점이나, 최근에는 기업금융·투자금융으로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정책금융 계열로, 산은캐피탈(KDB)과 IBK캐피탈(기업은행)이 해당됩니다. 이 그룹은 모회사의 정책금융 미션과 연계되어 산업 혁신·벤처생태계 활성화·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상업적 수익성을 추구하는 이중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ORIX(일본), SMFL(일본), GE Capital(미국, 규모 축소 후 재편), Siemens Financial Services(독일) 등이 주요 리스·파이낸싱 업체이며, 기술금융·벤처투자 영역에서는 SVB(Silicon Valley Bank, 2023년 파산 후 First Citizens Bank 인수)의 사례가 기술 전문 금융기관의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보여주는 교훈적 사례입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면접에서 "왜 산은캐피탈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동차금융 중심의 현대캐피탈·KB캐피탈이 아닌 산은캐피탈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때, "정책금융 자회사로서 5대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차별화된 미션"과 "투자금융 비중 50%라는 독보적 포트폴리오에서 이공계 전공 지식이 핵심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결합하여 답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업계 전반의 건전성 우려 속에서 연체율 0.3%라는 산은캐피탈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단순한 보수적 경영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정밀한 심사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더하면, 회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2장. 경쟁사 비교 및 산은캐피탈 포지셔닝

2-1. 비교 대상 5개사 선정 근거와 개별 분석

본 리포트에서는 산은캐피탈과 비교 분석할 대상으로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신한캐피탈, IBK캐피탈, 하나캐피탈 5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총자산 기준 업계 상위권 대형사일 것. 둘째, 금융지주 또는 정책금융 계열로서 산은캐피탈과 유사한 그룹 시너지 구조를 가질 것. 셋째, 사업 포트폴리오(자동차금융/기업금융/투자금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비교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총자산 40조원 이상으로 업계 부동의 1위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캡티브 금융사로서, 현대·기아

심층 분석 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차 판매와 연동된 자동차 할부·리스가 전체 매출의 68%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약 4,327억 원이나 ROA는 1.08%로 산은캐피탈(2.17%)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는 자동차금융이 안정적이지만 마진이 낮은 사업이며, 거대한 자산 규모 대비 수익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직원 수는 2,145명으로 산은캐피탈(약 270명)의 약 8배에 달합니다. 강점은 압도적 시장 지배력, 현대차그룹 연계 고객 기반, 해외 사업(15개국 진출)의 다변화이며, 약점은 현대차그룹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자동차 시장 침체 시 직접적 타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KB캐피탈은 총자산 약 11조원으로 은행계 캐피탈사 중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방대한 리테일 고객 기반을 활용한 자동차금융이 주력(전체 자산의 약 59%)이며, 최근에는 'Digital First' 조직 전환을 통해 비대면 심사·영업 체계를 업계 선도 수준으로 구축했습니다. 2024년 실적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총자산 순위에서 1위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적 자산 확대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다소 악화(연체율·NPL 상승)되었다는 점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공계 지원자 관점에서 KB캐피탈은 디지털 역량이 강한 대신 투자금융 비중이 낮아, 기술심사·벤처투자자와 같은 역할보다는 IT 시스템·데이터 분석 직무가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한캐피탈은 총자산 약 12조원으로 규모 면에서는 대형사이나, 2024년 실적이 부동산PF 부실 영향으로 급격히 악화된 회사입니다. 기업·IB금융이 주력이며, 신기술금융 자산은 약 1.7조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부동산PF 관련 대규모 총당금 적립으로 ROA가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NPL비율은 4.51%로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신한캐피탈의 사례는 신기술금융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투자 자산의 질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산은캐피탈은 신기술금융 자산 규모에서는 신한캐피탈에 뒤지지만(9,426억원 vs 1.7조원), 투자의 질(수익률·건전성)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IBK캐피탈은 기업은행(IBK)의 자회사로, 산은캐피탈과 가장 유사한 정책금융 계열 캐피탈사입니다. 총자산 약 7~8조원으로 산은캐피탈보다 규모가 작지만, 기업금융 중심의 사업 구조와 정책금융 연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ROA는 약 2.16%로 산은캐피탈에 근접한 업계 2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IBK캐피탈은 중소기업 대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어, 벤처투자·PEF·메자닌 등 투자금융 역량에서는 산은캐피탈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공계 인재 관점에서 IBK캐피탈과 산은캐피탈의 핵심 차이는 "중소기업 여신 심사"와 "기술 기반 투자심사" 중 어디에 더 비중이 있는냐의 문제입니다.

하나캐피탈은 하나금융그룹 소속으로 총자산 약 10조원 이상의 대형사입니다. 2024년 1인당 생산성(연봉 대비) 1위를 기록하며 운영 효율성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자동차금융과 기업금융을 균형 있게 운영하며, 최근에는 해외 법인(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확장에 적극적입니다. 하나캐피탈의 강점은 하나금융그룹의 종합금융 시너지(은행·증권·보험과의 연계)이며, 약점은 투자금융 부문에서의 독자적 경쟁력이 산은캐피탈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2-2. 산은캐피탈의 차별적 포지셔닝

위 5개사와의 비교를 통해 산은캐피탈의 포지셔닝은 "소수정예 고수익 기업금융·투자 전문 캐피탈"로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섯 가지 차별화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투자금융 비중이 업계에서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영업자산 기준으로 투자금융(PEF·벤처·메자닌·유가증권)이 약 27%를 차지하지만, 총영업수익 기준으로는 약 49.4%(3,66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투자금융 자산이 이자 수익뿐 아니라 자본이득이라는 고수익 원천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캐피탈이나 KB캐피탈에서는 투자금융의 영업수익 비중이 10%를 넘기 어려운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둘째, **KDB산업은행 100% 자회사로서의 딜 소싱(Deal Sourcing)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대형 딜(인수금융, 구조화금융, 기업구조조정)에 직접 참여하고, 연간 247.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과 연동하여 5대 전략산업(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AI)에 집중 투자합니다. 이는 자체 영업력만으로 딜을 발굴해야 하는 여타 캐피탈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적 우위입니다. KDB V:Launch 벤처플랫폼은 누적 28회 개최, 83개사 IR 참여, 31개사 2,508억원 투자유치라는 실적을 쌓았으며, 이 플랫폼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조기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AA- 신용등급은 캐피탈사 최상위급으로, 특히 보완자본 없이 순수 자기자본만으로 구성된 자본의 질적 우수성이 돋보입니다.** 일부 캐피탈사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포함하여 자기자본 규모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으나, 산은캐피탈은 이런 구조 없이도 건전한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평가기관이 높이 평가하는 요소이며, 자금 조달 비용 절감으로 직결됩니다.

넷째, **약 270명으로 10조원 자산을 운용하는 소수정예 고효율 조직입니다.** 1인당 운용자산이 약 370억원에 달하며, 이는 현대캐피탈(1인당 약 186억원)의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이 구조는 인건비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개인에게 요구되는 업무 강도와 책임 범위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대기업처럼 세분화된 직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초기부터 넓은 범위의 업무를 경험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1972년 설립의 국내 최초 여전사로서 50년 이상 축적된 기업금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84년 한국기술금융(신기술사업금융 전문) 설립, 1999년 합병을 통해 리스·할부·신기술금융을 결합한 독자적 모델을 구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업·벤처 네트워크는 쉽게 복제할 수 없는 무형자산입니다. 특히 1990~2000년대 한국 벤처 1.0 시대부터 축적된 기술금융 DNA는 산은캐피탈의 정체성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2-3. 산은캐피탈의 약점과 이공계 인재에게 함의

동시에 경쟁사 대비 명확한 약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 리테일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캐피탈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17개사 중 14~1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B2C 접점이 제한적인 기업금융·투자금융 중심 사업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입니다. 둘째, 총자산 규모가 현대캐피탈의 1/4에 불과하여 대형 딜 단독 수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KB캐피탈(Digital First 조직)이나 우리금융캐피탈(AX 16개 과제) 대비 디지털 전환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넷째, 대표이사가 2018년 이후 6명이 교체되었으며 산업은행 출향 인사 중심의 경영 구조로 인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독자 전략 수립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들은 역설적으로 이공계 인재에게 기회가 됩니다. 디지털 전환이 초기 단계라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소규모 조직이라는 것은 신입사원이더라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빠르게 참여하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에서는 5~7년 차에나 맡을 수 있는 수준의 업무를 2~3년 차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 최근 6개월 주요 이슈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3월 양승원 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양승원 사장은 KDB산업은행 PF본부장 출신으로,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구조화금융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은캐피탈이 기업금융·구조화금융 부문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2024년 10월에는 남부권투자금융본부가 부산에 신설되었는데, 이는 수도권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부산 지역에 거점을 둔 지원자라면 이

심층 분석 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총자산 10조원 돌파는 동사 역사상 이정표적 사건이며, 업계 '10조 클럽' 진입은 대형사로서의 위상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IB 선도적 지위 구축을 위해 해외여신 선별 취급 확대도 추진 중이며, 베트남-홍콩 법인을 통한 해외 사업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경쟁사 비교 분석은 "왜 이 회사인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 소재입니다. "자동차금융 중심의 현대캐피탈이나 KB캐피탈에서는 이공계 전공이 부수적 역할에 그칠 수 있지만, 투자금융 비중 50%의 산은캐피탈에서는 기술심사·투자심사의 핵심 인력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매우 효과적인 차별화 메시지입니다. 또한 "270명으로 10조원을 운영하는 고효율 조직에서, 입사 초기부터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포인트도 소규모 조직을 지원하는 명확한 이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장. 산은캐피탈 심층 분석

3-1. 회사 연혁과 정체성

산은캐피탈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동사의 정체성과 문화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972년 12월 한국산업리스(주)로 설립되어 국내 최초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1984년 정부 주도로 한국기술금융(주)이 별도 설립되어 신기술사업금융(벤처투자) 전문기능을 수행했습니다. 1999년 한국산업리스와 한국기술금융이 합병하면서 현재의 산은캐피탈이 탄생했고, 리스·할부·대출의 전통적 여신업무와 벤처투자·기술금융의 투자업무가 하나의 회사 안에 결합되는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2005년 상장폐지, 2013~2016년 매각 추진 후 중단이라는 불안정한 시기를 거쳐, 현재는 KDB산업은행의 핵심 자회사로 위상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연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기술금융"이라는 DNA입니다. 1984년부터 40년 이상 축적된 기술금융 경험, 즉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술 기반 기업에 투자하는 역량은 산은캐피탈의 핵심 정체성이며, 이것이 바로 이공계 인재를 별도 트랙으로 채용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본사는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22 산업은행 별관 2~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3,109억원, 직원 수는 약 219~276명(시점에 따라 변동)입니다. 조직은 기획관리본부, 영업지원본부, 투자금융본부, 리테일금융본부, 남부권투자금융본부(2024년 10월 부산 신설),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실, IT지원실로 구성됩니다. 이공계 신입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부서는 투자금융본부(벤처금융실, 기업투자실, 구조화금융실), 리스크관리실, IT지원실 등입니다.

3-2. 사업 구조: 투자금융이 절반을 차지하는 이례적 포트폴리오

산은캐피탈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업자산 기준'과 '영업수익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영업자산 기준으로는 기업금융(대출, 리스, 구조화금융)이 약 50%, 투자금융(PEF, 벤처투자, 메자닌, 유가증권)이 약 27%, 자동차금융(오토리스, 오토론)이 약 22%를 차지합니다. 잔여 약 1%는 기타 자산입니다. 그러나 총영업수익 기준으로 보면 구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투자금융이 49.4%(3,660억원)로 최대 수익원이 되고, 대출금융이 37.6%(2,784억원), 나머지가 자동차금융과 기타 수수료 수익입니다.

이 구조적 특성은 타 캐피탈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대캐피탈이나 KB캐피탈에서는 자동차 할부·리스 이자 수익이 영업수익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산은캐피탈에서는 벤처투자 회수 시 자본이득, PEF 운용보수·성과보수, 메자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 수익 등 투자금융 특유의 수익이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는 높은 수익률(ROA 2.17%)의 원천인 동시에, 투자 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실적이 급변하는 변동성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2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2% 급감한 것은 투자자산 평가손실과 지분법 손실 때문

심층 분석 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이었습니다.

신기술금융 자산만 따로 보면 약 9,426억원으로 업계 2위입니다. 1위는 신한캐피탈(약 1.7조원), 3위는 IBK캐피탈(7,682억원)입니다. 상위 3개사(신한, 산은, IBK)가 전체 캐피탈사 신기술금융 자산의 상당 부분을 독식하고 있어, 이 분야는 사실상 소수 대형사 중심의 과점 구조입니다. 산은캐피탈은 특히 SCM생명과학(줄기세포 치료제, 투자금 대비 약 6배 수익 실현), 와이팜(5G 부품, 코스닥 상장), 여러 AI·반도체 스타트업 등에서 우수한 투자 실적을 축적해왔습니다.

3-3. 재무 실적: 5년간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추세

산은캐피탈의 재무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총자산은 2018년 약 5조원에서 2024년 10조원 이상으로 6년 만에 두 배로 성장했습니다. 연도별 당기순이익은 2020년 1,373억원, 2021년 2,406억원(사상 최대), 2022년 1,405억원(투자자산 평가손 영향으로 42% 급감), 2023년 2,095억원(회복), 2024년 2,290~2,431억원(다시 사상 최대 경신)으로, 투자금융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 특성상 실적 변동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입니다. 2024년 매출액은 8,490억원으로 전년(4,281억원) 대비 거의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투자금융 회수 수익이 대규모로 반영된 결과로 추정됩니다.

건전성 지표에서 산은캐피탈은 업계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연체율 0.3%는 캐피탈사 전체 평균 2.47%의 약 1/8 수준이며, NPL비율 0.5%는 전체 평균 약 2.7%의 약 1/5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단순히 보수적 운영의 결과가 아니라, 정밀한 기술심사와 리스크 관리의 결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융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낮은 부실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투자 대상 기업의 기술력·사업성에 대한 평가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레버리지 배율은 6.3배로, 규제 상한(8배)과 비교할 때 약 1.7배의 추가 성장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3조원의 추가 자산 확대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신사업이나 해외 확장을 위한 자본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4. 전략 방향: 'IB투자 선도적 지위 구축'

산은캐피탈의 경영전략 핵심 키워드는 'IB투자 선도적 지위 구축'입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다섯 가지 전략 축이 확인됩니다.

첫째, **KDB V:Launch 벤처플랫폼을 통한 벤처생태계 활성화**입니다. 2023년 출범한 이 플랫폼은 KDB산업은행·산은캐피탈·외부 VC가 협력하여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누적 28회 개최, 83개사 IR 참여, 31개사 2,508억원 투자유치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플랫폼은 딜 소싱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KDB그룹의 벤처 지원 의지를 시장에 알리는 브랜딩 효과도 갖습니다.

둘째, **5대 전략산업 집중 투자**입니다. KDB산업은행의 247.5조원 정책금융 공급 계획과 연동하여,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AI 5개 산업에 투자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5대 산업은 모두 기술 전문성이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인 분야로, 이공계 인재의 전문 지식이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영역입니다.

셋째, **남부권투자금융본부(부산)를 통한 지역 확장**입니다. 2024년 10월 부산에 신설된 이 본부는 수도권 집중 구조를 깨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혁신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지역 대학·연구소 출신 벤처기업, 조선·해양·원자력 관련 기술기업 등에 대한 투자 기회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넷째, **해외외신 선별 취급 확대**입니다. 베트남과 홍콩에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

심층 분석 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로 해외 기업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해외투자에서 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어, '선별적' 확대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기조입니다.

다섯째, **차세대 IT시스템 구축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차세대IT추진단이 구성되어 여신관리시스템, 리스크관리시스템 등의 현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AI 기반 심사 모델,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이 중장기 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5. 리스크 요인

지원자로서 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구조적인 리스크는 **투자금융 비중 과다에 따른 실적 변동성**입니다. 벤처투자·PEF는 성공 시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피투자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회수가 지연되면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의 실적 급감이 이를 증명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대표이사의 잦은 교체**입니다. 2018년 이후 6명의 대표이사가 교체되었으며, 이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경영 전략 수립을 어렵게 합니다. 모회사인 산업은행의 인사 결정에 따라 경영진이 바뀌는 구조적 한계이며, 이로 인해 조직 문화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소규모 인력 구조에 따른 성장 한계**입니다. 270명으로 10조원을 운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사업 영역을 크게 확장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면 인력 총원이 필수적입니다. 채용 규모가 소수인 만큼, 한 명 한 명의 신입사원에게 거는 기대와 책임이 큼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디지털 전환 지연**입니다. 경쟁사 대비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분석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심사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리스크는 이공계 신입사원에게는 오히려 기여 기회가 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면접에서 "산은캐피탈의 약점이나 개선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디지털 전환 지연을 지적하면서, "이공계 출신으로서 AI 기반 투자심사 모델 개발,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등에 기여하여 이 갭을 메우겠다"는 건설적 답변을 제시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리스크를 인식하되 그것을 자신의 기여 기회로 전환하는 사고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4장. 인재상·조직 문화·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4-1. 산은캐피탈 공식 인재상(5P)의 해석

산은캐피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성원의 핵심가치를 5P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5P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채용·평가·승진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실질적 프레임워크입니다. 각 키워드를 지원 전략 관점에서 깊이 해석하겠습니다.

Passionate(열정적)은 "열정적인 삶으로 조직과 사회에 활력을 주는 인재"를 의미합니다. 소규모 조직에서 한 사람의 에너지와 태도가 전체 팀에 미치는 영향이 대기업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산은캐피탈 맥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공계 지원자라면 "기술 트렌드를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금융에 접목하려는 열정"을 구체적 사례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People-based(사람 중심)은 "따뜻한 마음씨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인재"입니다. 270명 조직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알고 있을 만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 환경에서 대인관계 역량과 배려심은 업무

심층 분석 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투자심사 과정에서도 피투자기업 경영진과의 신뢰 구축이 핵심이므로, 이 역량은 직무와도 직결됩니다.

Pioneer(개척자)는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창조하여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입니다. 이 키워드가 5P 중 이공계 인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항목입니다. 신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회사에서, 기술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능력이야말로 Pioneer 역량의 실제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이공계 전공 연구나 프로젝트에서 기존 방법론을 넘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소재가 됩니다.

Principle-based(원칙 기반)는 "잘못된 것을 당당히 말하되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인재"입니다. 금융업에서 원칙과 윤리는 특히 중요합니다. 투자심사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맞서 원칙을 지키는 태도, 동시에 이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됩니다.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와 리스크 관리가 강조되는 금융업 특성상, 이 역량은 승진과 평가에서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Professional(전문가)은 "전문적 지식과 창의력을 소유한 최고의 금융전문가"입니다. 270명 조직에서 각자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공계 지원자라면 단순히 전공 지식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금융적 판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브릿지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2. KDB Way 10대 행동규범과 그룹 차원의 가치체계

모회사 KDB산업은행의 'KDB Way' 10대 행동규범은 산은캐피탈에도 공유되는 그룹 차원의 가치체계입니다. 이 중 이공계 인재와 특히 관련 깊은 규범을 선별하면, "변화를 수용하자", "계산된 도전을 하자", "디지털 마인드를 갖자", "전문가 역할을 하자"가 핵심입니다. 특히 "디지털 마인드를 갖자"는 규범은 KDB그룹이 디지털 역량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공계 인재의 채용이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그룹 전략의 일환임을 뒷받침합니다.

"계산된 도전을 하자"라는 규범도 주목할 만합니다. 투자금융에서 성공하려면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위험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표현은 산은캐피탈의 투자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이공계 인재가 정량적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4-3. 조직 문화: 소수정예 공기업형 금융사

잡플래닛 평점 4.2/5.0(리뷰 13건)은 캐피탈사 중 상위권이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 등)의 후기를 종합하면 몇 가지 조직 문화 특성이 확인됩니다.

워라벨(Work-Life Balance)은 부서별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야근은 주 1~2회 수준이며, 딜 클로징 시기에 집중되는 패턴입니다. 이는 대형 금융사(특히 IB 부문)의 상시 야근 문화와 비교하면 상당히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소수정예 조직이므로 한 사람이 빠지면 팀 전체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개인의 책임감과 자기 관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보상 수준은 신입 초봉 약 5,870만원, 평균연봉 약 9,079만원(캐치 기준)으로, 금융공기업 중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대형 민간 금융사(현대캐피탈, KB캐피탈 등)의 초봉이 4,500~5,50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초봉은 다소 높은 편이나, 고연차로 갈수록 민간 대형사의 성과급이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건강검진, 휴양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대출, 주택자금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등이 제공되며, 산업은행 그룹의 복지 체계를 일부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는 공기업 특유의 위계적 측면과 소규모 조직 특유의 수평적 측면이 공존합니다. 인사와 경영 전략의 대방향은 산업은행 출향 경영진이 결정하는 탑다운(Top-down) 구조이나, 실무 레벨에서의 업무 수행과 의사소통은 비교적 수평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잡플래닛 태그에서 '수평적인 문화'와 '능력있는 동료'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이중적 구조를 반영합니다.

4-4. 이 산업·직무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 특성

여신전문금융업(캐피탈) 중 기업금융·투자금융 부문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된 역량·사고방식·행동 패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인재 특성이 도출됩니다.

분석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력이 가장 기본적인 역량입니다. 투자심사나 기업 여신심사에서는 방대한 데이터(재무 제표, 기술 자료, 시장 분석 등)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 기업/기술에 투자(대출)할 것인가"라는 이진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이나 직관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논리적 추론 능력이 핵심이며, 이공계 훈련을 받은 인재의 구조적 강점이 여기서 발현됩니다.

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브릿지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공계 출신이 투자심사팀에서 일한다고 할 때,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분석을 해도 이를 비기술 배경의 투자심의위원이나 경영진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투자 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술 개념을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 기술적 우위가 시장에서 어떤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지를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기회를 포착하는 '양면적 사고(Ambidexterity)'가 요구됩니다. 투자금융은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수반하며, 리스크를 완전히 회피하면 수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위험 추구는 2022년과 같은 대규모 손실로 이어집니다. "계산된 도전"이라는 KDB Way 규범이 이 역량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으며, 정량적 리스크 분석(확률·시나리오 분석)과 정성적 판단(경영진 역량 평가, 시장 타이밍 감각)을 균형 있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와 장기적 시야도 이 도메인의 중요한 인재 요건입니다. 벤처투자의 회수(Exit)까지는 평균 5~7년이 소요되며, 하나의 딜이 성사되기까지 수개월의 검토·협상 과정을 거칩니다. 단기적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장기적 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인내력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공계 연구 경험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끈기 있게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이를 자기소개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와 다부서 협업 능력은 소규모 조직에서 더욱 절실합니다. 하나의 투자 딜이 진행되면 투자심사(투자금융 본부), 법률 검토(준법감시인), 리스크 평가(리스크관리실), 자금 조달(기획관리본부)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270명 조직에서 이 부서들 간의 협업은 대기업보다 훨씬 밀접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원활한 협업이 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윤리적 판단력과 컴플라이언스 의식은 금융업 전반의 필수 역량이지만, 투자금융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미공개 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관리,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방지, 공정한 투자 의사결정 등은 법적·윤리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는 영역이며, 한 번의 위반이 회사 전체의 평판과 영업 기반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4-5. 이공계 인재에 대한 구체적 기대와 역할

산은캐피탈이 이공계열을 별도 트랙으로 채용하는 것은 단순한 다양성 확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적 필요에 의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그 구체적 기대를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첫째, **기술의 가치를 금융적 언어로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바이오 신약의 임상 단계별 성공 확률, 반도체 공정 기술의 세대별 원가 구조, 2차전지 소재의 에너지 밀도 개선 로드맵 등을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재무적·전략적 분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정량적 분석 모델의 개발과 고도화**입니다. 기술가치평가 모델,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모델, 리스크 정량화 모델 등에서 통계학·머신러닝·시뮬레이션 역량을 활용하여 심사의 정밀도를 높이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셋째, **디지털 혁신의 주도적 추진**입니다.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에 있는 산은캐피탈에서, AI 기반 심사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업무 자동화 등을 기획하고 구현하는 역할입니다.

넷째, **5대 전략산업에 대한 전문적 투자 인사이트 제공**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AI 각 분야에서 기술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유망 기업을 발굴하며, 기술적 위험과 기회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입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인재상 5P를 단순히 암기하고 나열하는 것은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5P 각 항목과 자신의 구체적 경험을 1:1로 매칭하되, 특히 Pioneer와 Professional에 무게를 두어 "이공계 전공 지식을 기술금융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접목하려는 개척자적 도전 정신"과 "데이터 기반의 전문적 분석 역량"을 부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People-based와 Principle-based를 통해 "기술 전문가이면서도 팀워크와 윤리 의식을 갖춘 균형 잡힌 인재"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5장. 직무 분석: 이공계열 일반직의 핵심 역할과 역량

5-1. 캐피탈사 이공계 직무의 4대 핵심 영역

캐피탈사에서 이공계 인재가 수행하는 역할은 크게 네 영역으로 나뉘며, 산은캐피탈에서는 투자금융의 높은 비중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역의 중요성이 특히 큼니다.

첫 번째 영역은 신기술금융 투자심사입니다. 이 영역은 산은캐피탈 이공계 직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투자금융본부 산하 벤처금융실에서 바이오, AI, 반도체,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기술의 사업성과 시장성을 분석하며, Due Diligence(실사)를 수행합니다. 산은캐피탈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벤처투자 프로세스는 기업상담, 투자검토, 심사·결정, 자금집행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공계 인력은 두 번째(투자검토)와 세 번째(심사·결정) 단계를 주도적으로 수행합니다.

투자검토 단계에서는 피투자 후보기업의 기술 자료(특허, 논문, 프로토타입, 임상 데이터 등)를 분석하고, 해당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기술의 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가 어느 수준인지, 기술적 리스크는 무엇인지를 평가합니다. 심사·결정 단계에서는 기술분석 결과를 재무적 밸류에이션과 결합하여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 조건(투자 금액, 지분율, RCPS 전환 조건, 풋옵션, 드래그/태그 어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는 SCM생명과학 투자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에 초기 투자하여 약 6배의 수익을 실현한 이 사례에서, 줄기세포 기술의 임상적 유효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한 기술심사 역량이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와이팜(5G 부품 전문기업)의 코스닥 상장 역시, 5G 통신 기술의 발전 방향과 부품 시장의 성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결과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공계 인재의 전공 지식이 투자심사에서 어떻게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두 번째 영역은 기업금융 기술심사입니다. 기업금융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설비, 기계,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리스 또는 대출 시 해당 자산의 기술적 가치, 잔존 수명, 유지보수 비용, 기술적 진부화(Obsolescence) 위험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CNC 공작기계에 대한 리스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장비의 기술 사양, 시장에서의 경쟁 장비 대비 성능, 예상 내용연수, 중고 시장에서의 잔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리스 조건(리스기간, 잔존가치 설정, 리스료)을 결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정책자금대출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의 유효성을 심사합니다.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에서도 기술적 성능 예측(발전량 시뮬레이션, 용량 감쇠 예측 등)이 심사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용평가(TCB) 등급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기술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리스크 분석과 모델링입니다. 리스크관리실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여신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합니다. 핵심 업무로는 PD(부도확률, Probability of Default) 모델 개발 및 검증, LGD(부도 시 손실률, Loss Given Default) 추정, EAD(부도 시 익스포저, Exposure at Default) 산출, VaR(Value at Risk) 계산, 스트레스 테스트(경기침체·금리급등·부동산PF 부실 등 시나리오별 손실 추정), 리스크 데이터마트(RDM) 구축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Python, R, SAS 등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와 SQL 기반의 데이터 처리 역량이 필수적이며, 머신러닝 기법(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XGBoost 등)을 활용한 신용 스코어링 모델 개발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 하에서 '고영향 AI'로 분류될 대출심사 AI 모델의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과 공정성(Fairness) 검증도 이공계 인력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과제입니다.

네 번째 영역은 IT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입니다. IT지원실과 차세대IT추진단에서 여신관리시스템, 리스크관리시스템,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디지털 금융 서비스(온라인 대출 신청, 비대면 계약 등)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합니다. 현재 산은캐피탈은 디지털 전환이 초기 단계에 있어,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아키텍처 설계부터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여신 데이터, 투자 포트폴리오 데이터, 시장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5-2. 내부·외부 이해관계자 맵

이공계 직무 수행자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이해관계자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이해관계자로는 먼저 **투자금융본부 내 동료 심사역**이 있습니다. 투자 후보 발굴, 기술 분석, 밸류에이션 작업을 함께 수행하며, 시니어 심사역으로부터 OJT(On-the-Job Training)를 받습니다. 둘째, **기업금융 영업팀**은 딜을 소싱하고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부서로, 기술심사 결과를 영업팀에 전달하고 영업팀으로부터 시장 정보를 제공받는 쌍방향 협업 관계입니다. 셋째, **리스크관리실**은 개별 딜의 리스크를 검토하고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 한도를 관리하며, 투자심사 보고서에 대한 리스크 관점의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넷째,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은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법적 적법성, 이해상충 여부, 내부통제 절차 준수를 감독합니다. 다섯째, **기획관리본부**는 자금 조달 계획, 예산 배분, 경영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며, 투자금융본부의 자금 소요를 조율합니다. 여섯째, **IT지원실**은 시스템 개발·운영 관련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공계 인재가 IT 부서에 배치될 경우 직접적 소속이 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로는 **피투자 기업(스타트업, 벤처기업) 경영진 및 기술진**이 가장 빈번한 접점이며, 기술 실사 과정에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KDB산업은행 관련 부서**(벤처금융부, PF본부, 구조조정실 등)는 딜

심층 분석 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공동 진행, 정책금융 연계 등에서 협업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외부 VC·PE(벤처캐피탈·사모펀드)와는 공동 투자(Co-investment) 관계에서 상호작용합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데이터 등)은 TCB 등급 확인, 기술가치평가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접촉합니다. **법무법인·회계법인**은 Due Diligence, 계약서 작성, 세무 자문 등에서 외부 전문가로 참여합니다.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는 규제 가이드라인, 보고 의무, 업계 통계 등의 공식 채널입니다.

5-3. 필요 역량 체계: 기술·지식·소프트스킬

이공계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세 범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술적·지식적 역량(Hard Skills)으로는 우선 이공계 전공 지식 자체가 기본입니다. 기계, 전자, 화학, 바이오, 컴퓨터과학, 재료공학, 에너지공학 등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기술심사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무분석 기초(DCF 밸류에이션, 비교기업 분석, 재무비율 분석)를 습득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기업이라도 재무적으로 투자 가치가 없을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와 데이터 분석(Python, R, SQL, Excel 고급 활용)은 리스크 모델링과 투자 분석 모두에서 활용되며, 기술가치평가 방법론(기술수명 분석, 기술기여도 산출, 로열티 면제법, 수익접근법 등)에 대한 이해도 도움이 됩니다. 금융 규제 이해(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투자촉진법, 금융규제 전반)는 입사 후 학습으로 보완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파악하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소프트스킬로는 분석적 사고력이 가장 기본이며, 이는 이공계 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훈련됩니다. 기술→비기술 간 브릿지 커뮤니케이션은 앞서 강조한 대로, 복잡한 기술 개념을 비전문가가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팀워크는 소규모 조직의 다부서 협업 환경에서 필수적이며, 문제해결 능력은 예상치 못한 상황(피투자기업의 기술 실패, 시장 환경 급변 등)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량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계산된 도전' 마인드, 즉 위험을 회피하지 않되 정량적 분석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태도도 핵심 소프트스킬입니다.

우대 자격증으로는 2026년 신설된 기술신용평가사(TCA) 자격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이 자격은 기술보증기금이 주관하며, 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 역량을 인증합니다. CFA(공인재무분석사)나 FRM(재무위험관리사)은 금융 전문성을 증명하는 글로벌 자격이며, 빅데이터분석기사나 정보처리기사는 데이터·IT 역량의 공인 증거가 됩니다. 해당 전공 분야의 기사 자격(기계기사, 전기기사, 화학분석기사 등)도 기술심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뒷받칩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은 투자금융 부서 배치 시 법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5-4. 성과 지표(KPI)와 평가 포인트

이공계 직무의 KPI는 배치 부서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추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금융 부서에 배치될 경우, 투자 심사 건수(연간 몇 건의 딜을 검토·심사했는지), 투자 성사 건수와 금액(실제 투자로 이어진 딜의 규모), 투자 포트폴리오의 회수 수익률(IRR, Multiple), 투자 건전성(투자 포트폴리오의 부실률) 등이 핵심 KPI가 됩니다. 단, 벤처투자의 특성상 단기 성과 측정이 어려우므로, 신입 1~3년 차에서는 심사 보고서의 질적 수준, 기술 분석의 정확성, 딜 프로세스에 대한 숙련도 등 과정 지표가 더 중요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리스크관리 부서에 배치될 경우, 리스크 모델의 예측 정확도(PD 모델의 Gini 계수 등), 규제 보고의 적시성과 정확성,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의 현실성과 유용성, 리스크 데이터마트의 안정적 운영 등이 KPI가 됩니다.

IT 부서에 배치될 경우, 시스템 가용률(Uptime), 프로젝트 납기 준수율, 시스템 장애 대응 시간, 사용자 만족도,

심층 분석 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디지털 혁신 과제의 달성도 등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공통적으로는 KDB Way 행동규범의 실천도, 내부 교육 이수 현황, 자격증 취득, 동료·상사 다면평가 결과 등이 종합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5. 대표 업무 시나리오: 바이오 벤처 투자심사 전 과정

실제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바이오 신약 개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가상 시나리오로 구성합니다. A바이오는 줄기세포 기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으로, 국내 임상 2상을 완료하고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려 합니다. KDB V:Launch 벤처플랫폼의 IR 행사에서 산은캐피탈 투자팀의 관심을 끌었고, 투자 검토가 시작됩니다.

1단계(기업 상담 및 예비 검토, 1~2주): 이공계 신입사원은 시니어 심사역과 함께 A바이오 경영진을 만나 기업 개요, 기술 현황, 자금 사용 계획 등을 청취합니다. 이 단계에서 신입은 A바이오의 기술 자료(논문, 특허, 임상 데이터)를 사전 분석하여 미팅 전 예비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2단계(기술성 분석, 2~3주): 이공계 인력의 핵심 역할이 발휘되는 단계입니다. A바이오의 줄기세포 치료 기술의 과학적 기반을 분석합니다. 세포 분리·배양·분화 기술의 독자성, 동종(Allogenic) vs 자가(Autologous) 접근법의 장단점, 임상 2상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p-value, 효과 크기 등), 안전성 프로파일(부작용 발생률, 종양 형성 위험),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도와 잔여 존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경쟁 기술(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등)과의 비교 분석도 수행합니다.

3단계(시장성 분석, 1~2주):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시장의 글로벌 규모(약 80~100억 달러), 성장률(CAGR 6~8%), 기존 치료법(히알루론산 주사, 관절경 수술, 인공관절 치환술) 대비 줄기세포 치료의 차별화 포인트와 가격 경쟁력, 미국 FDA 규제 환경에서의 허가 가능성 등을 분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공계 지식과 시장 분석 능력의 결합이 요구됩니다.

4단계(사업성 분석 및 밸류에이션, 2~3주): A바이오의 재무제표 분석, 현금소진율(Burn Rate) 계산, 임상 3상·허가·상업화까지의 자금 소요 추정, 시나리오별 매출 예측(성공 시·부분 성공 시·실패 시), DCF 밸류에이션, 유사 기업 비교법(Comparable) 등을 수행합니다. 경영진의 역량과 트랙레코드도 평가합니다. TCB 등급 확인이 병행됩니다.

5단계(투자조건 협상 지원, 1~2주): 투자 금액, 기업가치(Pre-money/Post-money Valuation), 투자 방식(RCPS, CB 등), 전환 조건, 풋옵션, 이사회 참관권, 드래그/태그 어용 조항 등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공계 인력은 기술 관련 조건(마일스톤 조건, 기술 실패 시 투자금 보호 장치 등)의 설계에 기여합니다.

6단계(심사위원회 보고서 작성 및 발표, 1주): 위의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투자심사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기술 분석 파트는 이공계 인력이 주도하며, 보고서에는 투자 추천 의견(투자/부결/조건부 투자)과 함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기술 관련 질의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7단계(사후관리, 투자 이후 지속): 이사회 참관, 분기별 경영 모니터링(재무 실적, 임상 진행 현황, 인력 변동 등), 추가 투자 라운드(Follow-on) 검토, 엑시트 전략(IPO, M&A, 세컨더리 매각) 수립 등을 수행합니다. 피투자기업의 기술적 이슈가 발생하면 이공계 인력이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투자팀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워크플로우에서 이공계 전공 지식은 2~4단계에서 비대체적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상경계 출신이 재무 분석은 잘하더라도, 줄기세포 기술의 임상적 유효성이나 반도체 공정의 기술적 난이도를 평가하는 것은 이공계 훈

심층 분석 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련을 받은 인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영역입니다. 이것이 산은캐피탈이 이공계를 별도 트랙으로 채용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며,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반드시 어필해야 하는 핵심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입니다.

5-6. 하루·한 달·1년 단위의 업무 사이클

하루 단위로 보면, 오전에는 전일 밤 사이의 시장 뉴스(투자 관련 산업 동향, 피투자기업 관련 뉴스, 규제 변화 등)를 확인하고, 진행 중인 딜의 분석 업무(기술 자료 검토, 모델링 작업 등)를 수행합니다. 오후에는 내부 미팅(투자팀 주간 회의, 리스크관리실 협의 등)이나 외부 미팅(피투자 후보기업 방문, VC 네트워킹 등)이 진행됩니다. 저녁에는 보고서 작성이나 학습(금융 트렌드, 기술 동향 등)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한 달 단위로 보면, 동시에 2~3개의 딜이 각기 다른 단계에서 병렬로 진행됩니다. 하나의 딜이 예비 검토 단계에 있으면, 다른 딜은 심사위원회 보고서 작성 단계에, 또 다른 딜은 사후관리 분기 보고 단계에 있는 식입니다. 매월 팀 내 포트폴리오 리뷰 미팅이 있어, 기존 투자 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슈를 논의합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연초에 투자금융본부의 연간 투자 계획(목표 투자 규모, 산업별 배분, 회수 목표 등)이 수립되고, 이에 맞춰 딜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KDB V:Launch 행사는 연 4~6회 개최되며, 이를 통해 신규 딜을 발굴합니다. 분기별로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평가(Fair Value Assessment)를 수행하고, 연말에는 연간 성과 리뷰와 차기 연도 전략 수립에 참여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면접에서 "입사 후 3년 계획을 말해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위의 업무 사이클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1년 차에는 시니어 심사역의 지도 하에 딜 프로세스 전 과정을 경험하고 기본기를 익히겠습니다. 특히 제 전공인 [분야] 지식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 기술심사에서 즉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 개발하겠습니다. 2년 차에는 독자적으로 기술 분석 파트를 주도하고,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의 기술 섹션을 단독 작성하는 수준에 도달하겠습니다. 3년 차에는 특정 산업 영역(예: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중 하나)에서 사내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CFA 또는 기술신용평가사 자격 취득과 함께 투자심사 역량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겠습니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이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삼일PwC — 캐피탈사 현황 점검과 대응방안 — <https://www.pwc.com/kr/ko/insights/industry-focus/capital-company.html>
2.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자료 — <https://www.kif.re.kr/kif4/main/>
3. 한국신용평가 — 산은캐피탈 — 등급 — https://www.kisrating.com/ratingsSearch/corp_overview.do?kiscd=820067
4. 한국금융신문 — 산은캐피탈 투자평가 분석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07272200467974dd55077bc2_18
5. 한국금융신문 — 캐피탈사 2024 이슈 분석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2290658459559dd55077bc2_18
6. 한국금융신문 — 한신평 2025 캐피탈업 전

심층 분석 보고서: 산은캐피탈-이공계열 일반직(정규직)

- 망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10718050638896a663fbf34_18
7. 한국금융신문 — 캐피탈사 생산성 랭
킹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50107092527466a663fbf34_18
8. THE BELL — 산은캐피탈 수익성 최상위 분
석 — <https://www.thebell.co.kr/front/newsview.asp?key=202506041459126640101387>
9. THE BELL — 산은캐피탈 IB 선도 지위 전
략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03240758364960104362>
10. THE BELL — 산은캐피탈 벤처투자
DNA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181004509920107478&lcode=00>
11. IB토마토 — 산은캐피탈 총자산 10조 돌파 — <https://www.ibtomato.com/view.aspx?no=13389>
12. 뉴스토마토 — 캐피탈사 신기술금융 현
황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5054>
13. 이투데이 — 여전사 건전성 동향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3350>
14. 이지경제 — 금감원 금융지주 총자산 통
계 — <https://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703>
15. 서울경제 — 우리금융캐피탈 AI전환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30482>
16. 머니S — 캐피탈사 건전성 약화 분
석 —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101716505833733>
17. 뉴데일리 — 4대 금융 캐피탈사 수익
성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02/2024050200175.html>
18. 아시아타임 — 여전업권 2026 전망 —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1229500305>
19. 전자신문 — 여전업계 신기술투자 확대 — <https://www.etnews.com/20250108000181>
20. 산은캐피탈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dbc.co.kr>
21. 산은캐피탈 인재상(5P) — <https://www.kdbc.co.kr/recruitInfo/talent>
22. 산은캐피탈 CEO 인사말 — <https://www.kdbc.co.kr/enterInfo/greetings>
23. 산은캐피탈 벤처투자 안내 — <https://www.kdbc.co.kr/invest/venture>
24. 산은캐피탈 복리후생 — <https://www.kdbc.co.kr/recruitInfo/welfare>
25. 자소설닷컴 — 2026 상반기 채용공고 — <https://jasoseol.com/recruit/103510>
26. 캐치 기업정보(연봉) — <https://www.catch.co.kr/Comp/CompSummary/820067>

